

[용산구 사회적경제 상호거래·상호협력 현황 실태조사 보고서]

용산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

2021. 3

[목차]

1. 연구 배경 및 목적

2. 설문 방법

1) 설문 내용

2) 설문 방법

3. 응답 현황

4. 용산구 사회적경제 상호거래·상호협력 현황 분석

1) 용산구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관심 및 교류 정도

2) 용산구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네트워크 참여도

3) 용산구 사회적경제 기업 간 상호거래·상호협력 현황

4) 용산구 사회적경제 기업 간 상호거래·상호협력 필요 정도

5) 용산구 사회적경제 상호거래·상호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

5. 소결

용산구 사회적경제 상호거래·상호협력 현황 실태조사 보고서

1. 연구 배경 및 목적

- 사회적경제 기업의 상호거래·상호협력은 개별 기업들의 성장을 돕고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를 위해 필요함
- 지역단위에서의 상호거래·상호협력 촉진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음
-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이유로 용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는 용산구 내 사회적경제 기업들 사이의 상호거래·상호협력 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함
- 이후 용산구 내의 사회적경제 기업들 사이의 상호거래·상호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의 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됨

2. 설문 방법

1) 설문 내용

- 용산구 내 사회적경제 기업들 간 관심 및 교류 현황
- 용산구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네트워크 참여 현황
- 용산구 내 사회적경제기업들 간 상호거래 및 상호협력 현황
- 용산구 내 사회적경제기업들 간 상호거래 및 상호협력 활성화 방안

2) 설문 방법

- 이메일을 이용한 설문지 배포와 수거를 진행함
-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유무선 전화로 참여를 독려함
- 설문 기간은 2021년 2월 2일부터 2월 21일까지, 총 20일간 진행됨
- 설문지는 2015년 공개된 「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상호거래·상호협력 활성화를 위한 연구」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참고하여 작성됨

3. 응답 현황

- 서울시 용산구 지역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(인증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)을 조사대상으로 함
- 2021년 1월 기준 용산구 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총 149개 중 실제로 다른 지역구로 이전했거나 운영이 중단된 기업을 제외한 102개 기업을 조사대상으로 함
- 102개 기업은 사회적경제 기업 유형에 따라 인증사회적기업 18개, 예비사회적기업 11개, 협동조합 60개, 사회적협동조합 4개, 마을기업 7개, 자활기업 2개로 분류
- 최종 응답 기업은 24개, 최종 응답률은 24%

<표 1> 응답자 현황

형태	기준 조사대상	응답 현황	비고
인증사회적기업	18	8	44%
예비사회적기업	11	3	27%
협동조합	60	7	12%
사회적협동조합	4	2	50%
마을기업	7	3	43%
자활기업	2	1	50%
합계	102	24	24%

4. 용산구 사회적경제 상호거래·상호협력 현황 분석

1) 용산구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관심 및 교류 정도

- 용산구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관계는 관심 평균이 68.3%, 교류 평균이 48.3%로 나타남
- 실제 교류는 관심도 보다 낮게 나타나고, 협동조합의 경우 그 차이가 가장 큼
- 업종별 관심도는 식품(1개 기업), 돌봄(2개 기업)이 80% 이상, 교육체험활동(8개 기업), 물품제조판매(2개 기업), 인쇄디자인(1개 기업), 기타(3개 기업)가 60% 이상으로 나타남
- 업종별 교류 정도는 돌봄(2개 기업), 기타(3개 기업)이 80%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,

식품(1개 기업), 인쇄디자인(1개 기업)이 60%, 그 이외 유형은 교류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

<표 2>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 관심 및 교류 현황 - 유형별

형태	관심 평균 (응답업체 수)	교류 평균 (응답업체 수)
인증사회적기업	75% (8)	55% (8)
예비사회적기업	73.3% (3)	66.7% (3)
협동조합	62.9% (7)	31.4% (7)
사회적협동조합	80% (2)	70% (2)
마을기업	73.3% (3)	53.3% (3)
자활기업	0% (1)	0% (1)
합계	68.3 (24)	48.3% (24)

<표 3>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 관심 및 교류 현황 - 업종별

분야 (기업수)	관심 평균 (응답업체 수)	교류 평균 (응답업체 수)
교육체험활동 (8)	77.5% (8)	57.5% (8)
공간행사문화예술 (5)	56% (5)	36% (5)
식품 (1)	100% (1)	60% (1)
물품제조판매 (2)	70% (2)	40% (2)
돌봄 (2)	80% (2)	80% (2)
인쇄디자인 (1)	60% (1)	60% (1)
건축인테리어 (2)	50% (2)	40% (2)
기타 (3)	60% (3)	80% (3)
합계 (24)	68.3 (24)	48.3% (24)

2) 용산구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네트워크 참여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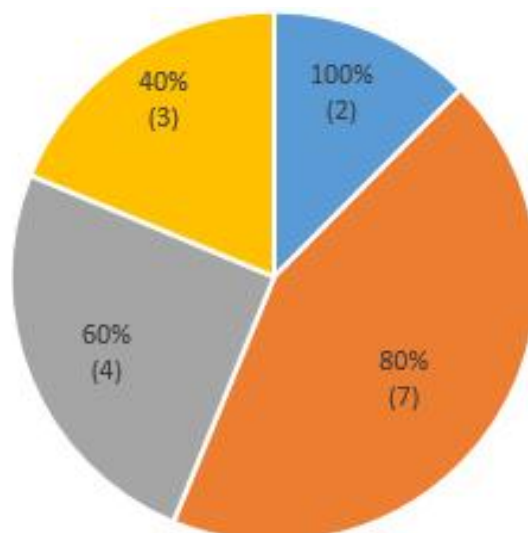
- 용산구 내의 사회적경제 관련 네트워크에는 66.7%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음
- 기업 유형별로 보면 인증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은 100%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일부만 참여하고 있음

<표 4> 유형별 네트워크 참여유무 및 참여도

형태	예	아니오
인증사회적기업	8 (100%)	0 (0%)
예비사회적기업	3 (100%)	0 (0%)
협동조합	2 (28.6%)	5 (71.4%)
사회적협동조합	2 (100%)	0 (0%)
마을기업	1 (33.3%)	2 (66.6%)
자활기업	0 (0%)	1 (100%)
소계	16	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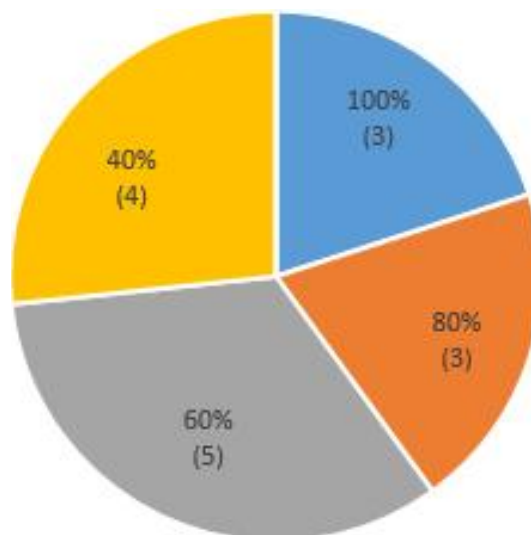
- 용산구 내 사회적경제 관련 네트워크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적극도를 조사함
- 용산구 내의 사회적경제 관련 네트워크에 100% 참여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2개 기업(12.6%), 80% 참여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7개 기업(43.8%), 60% 참여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4개 기업(25.2%), 40% 참여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3개(12.5%), 전혀 적극적이지 않다인 0%로 응답한 기업은 없음
- 용산구 내의 사회적경제 관련 네트워크에 50% 이상 참여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절반 이상(68.8%)으로 나타남

[그림 1] 네트워크 참여의 적극성



- 용산구 내의 사회적경제 관련 네트워크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에게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기업활동에 도움 되는 정도를 조사함
- 용산구 내의 사회적경제 관련 네트워크 참여가 기업활동에 100%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3개 기업(18.8%), 80%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3개 기업(18.8%), 60%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5개(31.3%), 40% 도움이 된다고 한 기업은 4개(25%),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0%를 선택한 기업은 없었고, 무응답이 1개 기업으로 나타남

[그림 2]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도



- 용산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불참한 이유에 대하여 조사함
- 용산구 사회적경제 관련 네트워크에 불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이 "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"는 응답이 4개로 가장 많음
- 이 외에 "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공유할 사업의 내용을 찾기 어렵다"와 "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참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"는 응답이 각 2개 기업씩 나옴
-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인적, 물적 부족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네트워크에 참여할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임

<표 5> 용산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불참의 이유

네트워크 불참이유	예
① 사회적경제 관련 네트워크 활동이 미진하다.	0
②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공유할 사업의 내용을 찾기 어렵다.	2
③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.	4
④ 필요성을 못느끼겠다.	2
기타	0
합계	8

3) 용산구 사회적경제 기업 간 상호거래·상호협력 현황

<표 6> 기업 유형별 상호거래 및 상호협력 경험 현황

형태	있음	없음
인증사회적기업	8	0
예비사회적기업	2	1
협동조합	2	5
사회적협동조합	1	1
마을기업	2	1
자활기업	0	1
합계	15	9

- 기업 유형별 사회적경제 기업 간 상호거래 및 상호협력 경험유무에 대해 조사함
- 상호거래·상호협력 경험에 대해 인증사회적기업 중 8개 기업(100%), 예비사회적기업 중 2개 기업(66.7%), 협동조합 중 2개 기업(28.6%), 사회적협동조합 중 1개 기업(50%), 마을기업 중 2개 기업(66.7%)가 상호거래 및 상호협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예비사회적기업 중 1개 기업(33.3%), 협동조합 중 5개 기업(71.4%), 사회적협동조합 중 1개 기업(50%), 마을기업 중 1개 기업(33.3%), 자활기업 중 1개 기업(100%)가 상호거래 및 상호협력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

<표 7> 상호거래 및 상호협력 경험 부재 이유

유형별 네트워크 불참여 이유	기업수
① 다른 사회적경제기업들과의 상호거래 혹은 상호협력 사업(활동)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.	2
② 지역에서 상호거래 혹은 상호협력 사업(활동)을 할 수 있는 적당한 사회적 경제기업이 없다.	2
③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상호거래 혹은 상호협력 사업(활동)에 적극적이지 않다.	3
④ 지역에서 어떠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.	1
⑤ 기타	0
합계	8

- 상호거래·상호협력의 경험 부재의 이유로는 “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상호거래 혹은 상호협력 사업(활동)에 적극적이지 않다”가 3개 기업(37.5%), “다른 사회적경제 기업들과의 상호거래 혹은 상호협력 사업(활동)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.”가 2개 기업(25%), “지역에서 상호거래 혹은 상호협력 사업(활동)을 할 수 있는 적당한 사회적경제 기업이 없다.”가 2개 기업(25%), “지역에서 어떠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”에 1개 기업(12.5%)이 응답함
- 상호협력·상호거래가 활발하지 않고(<표 7>의 ③), 대상 기업을 찾기 힘들다(<표 7>의 ②)고 느끼는 것은 지역의 상호거래·상호협력 생태계가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영향으로 보임, 이로 인해 상호거래·상호협력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결과(<표 7>의 ①)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됨. 결국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성 및 강화가 지역 사회적경제 관련 상호거래·상호협력 선순환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4) 용산구 사회적경제 기업 간 상호거래·상호협력 필요 정도

- 용산구 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상호거래·상호협력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조사함
- 전체 평균 68.7%가 상호거래·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함
- 24개 응답 기업 중 13개의 기업(56.6%)이 사회적경제 기업 사이의 상호거래 및 상호협력이 80%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함
-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평균 80%로 상호거래 및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함

<표 8> 상호거래 및 상호협력 필요 정도

	응답수
100%	5
80%	8
60%	4
40%	4
20%	2
0%	0
	68.7% (23)

* 24개 응답기업 중 1개 기업 무응답

<표 9> 기업 유형별 상호거래 및 상호협력 필요 정도

유형별 네트워크 필요현황	응답수	평균
인증사회적기업	8	70%
예비사회적기업	3	80%
협동조합	7	57.1%
사회적협동조합	2	70%
마을기업	3	80%
자활기업	0	0%

* 24개 응답기업 중 1개 기업 무응답

5) 용산구 사회적경제 상호거래·상호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

- 용산구 사회적경제 상호거래·상호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질문함
- “사회적경제 기업 및 사업 정보의 상호 공유”(20.3%), “사회적경제 상호거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 시범사업”(20.3%), “사회적경제 공공/민간시장 확대”(15.3%), “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”(11.9%) 등의 순으로 조사됨

<표 10> 용산구 사회적경제 상호거래 및 상호협력 활성화를 위한 필요 사업

상호거래 및 상호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	응답 기업수	비고
사회적경제기업 및 사업 정보의 상호 공유	12	20.3%
사회적경제 상호거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 시범사업	12	20.3%
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	7	11.9%
사회적경제 공유 공간 마련	4	6.8%
사회적경제 기금조성	2	3.4%
사회적경제 공공/민간시장 확대	9	15.3%
사회적경제기업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적경제 교육	4	6.8%
사회적경제기업들 탐방 정례화	3	5.1%
사회적경제시장 확대를 위한 윤리적 소비운동	2	3.4%
사회적경제기업 간 상호 홍보	3	5.1%
기타(기업간 상호거래활성화를 위한 보상 이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되어야 이후 거래가 가능)	1	1.7%
합계	59	

5. 소결

○ 먼저 사업의 중요도에 비해 조사 응답률이 낮은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 용산구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상호거래·상호협력 촉진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,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고, 조사 방법 및 인력 확대를 통해 응답률을 현재의 2배 이상 높일 필요가 있음. 전체 응답 기업 수뿐만 아니라 기업 유형별 조사 결과의 유의미성을 위해 유형별 응답률도 높일 필요가 높게 요구됨

○ 조사 전의 예측과는 달리 용산구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상호거래·상호협력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게 나타남. 상호거래·상호협력 필요도가 23개 기업 평균 68.7%로 반 이상의 기업이 80% 이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, 반대로 필요성을 40% 이하로

느끼는 곳도 6개 기업이 존재함. 이들이 생각하는 상호협력·상호거래의 불필요성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

○ 사회적경제 기업 간 상호거래·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자발적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음. 용산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네트워크, 용산구 내의 기업 유형별 네트워크, 사업 유형별 네트워크 등을 조직하고 용산구 내 사회적경제 지역별 혹은 의제별 행사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간 자발적인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로 보임

○ 상호거래·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기업 구성원들 개개인에게 상생화 호혜의 사회적경제 가치 함양이 필요함. 이를 위해서는 용산구 사회적경제 기업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통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하여 지역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필요 있음. 이후 상호거래·상호협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성공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됨

○ 이와 같은 용산구 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네트워크가 지속·강화되어 기반조성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상호거래·상호협력이 촉진될 것이고, 그 과정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구체적 사업내용, 제품 및 서비스들을 자세히 파악하여 지역 네트워크 내에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구축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 더불어 상호거래·상호협력을 면밀히 파악고 성공사례를 널리 공유하여 기업들의 협력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해 보일 수 있음